

욥기 42:1-7: 이유 없는 고난

김상기*

1. 들어가는 말

현재의 욥기는 1:1-2:10(A); 2:11-13(B); 3:1-42:6(+7)(C); 42:7-9(B'); 42:10-17(A')의 교차법적 구조를 갖는다. 이 가운데 C는 욥의 탄식(3장)에 의해 촉발된 대화 형식의 긴 시로서 B와 B'를 매개로 산문 부분과 연결된다. 시 부분이 없으면 B와 B'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반면에 A와 A'는 B'를 A'와 잇는 연결구(42:7a β)를 제외하면 단절 없이 계속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다. B는 A에 씌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를 전제한다. 반면에 B'는 A'를 기대하게 하지 않는다. 이러한 BB'는 C와 함께 보다 큰 하나의 단위를 이루지만, 독립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BB'는 각각 독립적인 AA'와 C를 결합시키기 위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A에서 사탄은 대가 없는 야훼 경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이유 없는 고난의 형태로 바꿔 시험한다. 1-2장에서 욥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는 이유 없는 고난 문제를 남긴다: 이유 없는 고난이 있는가? BCB'는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¹⁾

이에 대해 욥기가 어떻게 답하는가는 42:1-7의 이해에 달려 있다. 욥이 3-31장에서 저항하며 제기한 문제들이 비록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여기서 해결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1-6절과 7절은 문제의 차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로 떼어 읽는다. 읽기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앞뒤 문맥과 구별되는 닫힌 단락이지만, 42:1-7은 서로 구별되는 두 단락 C와 B'의 마지막과 처음을 포괄하고, 그 결과 앞뒤로 다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로 읽으려 하는 것은 시

* 전주대 신학대학원 객원교수, 구약학.

1) 시 부분과 산문 부분은 형식뿐만 아니라 언어 특징도 다르다. 시 부분의 언어는 포로기 이후의 히브리어 특징을 보이는 산문 부분의 언어와 구별되고 시편의 표준적 시어들과도 다른 포로기 이전 사투리로 여겨진다. 참조, A. Hurvitz, "The Date of Prose-Tale of Job Linguistically Reconsidered", *HTR* 67 (1974), 17-34; B. Zuckerman, *Job the Silent. A Study in Historical Counterpoi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26과 205-206 각주 36. 이는 산문 부분의 모티프가 고대근동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을지라도 시 부분은 늦게 이야기 문맥을 갖게 되었음을 뜻한다. 시 부분과 산문 부분이 어느 정도 공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 부분을 둘러싼 친구들에 관한 부분이 양자를 결합시키기 위한 장치라면, 산문 부분은 시 부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위에서 말하는 것은 산문 문맥 안의 시적 대화를 현재 형태대로 놓고 하는 말이다.

부분이 BCB'의 일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달힌' 구조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아래 참조).

1-6절과 7절을 결합하여 읽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7절과의 결합은 1-7절을 변화의 관점에서 읽게 한다. 거기서 물어야 하는 욥의 변화 계기는 (필자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제까지 간과되어 왔던 본문의 중요한 한 측면을 드러내 보여주고, 이러한 42:1-7은 특히 야훼의 폭풍 속 발언이 욥기 안에서 갖는 위치를 근본적으로 다시 정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7절은 이유 없는 고난은 있는가에 대해 간접적으로 답함으로써 '이유 없이 야훼를 경외하겠느냐'고 사탄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답을 줄 것이다. 또한 이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1-6절 내부의 여러 가지 모호한 문제들, 예컨대 6절의 동사 '마아스'(מַאֲסָ)가 본문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목적어가 생략되었다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와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나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사역한 본문의 구조를 밝히고, 그 구조에 따라 본문을 이해하고자 한다.

2. 42:1-7 본문 사역

- 1 욥이 야훼께 대답하며 말하였다.
- 2 당신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고
무슨 계획이든²⁾ 당신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 줄 나는 압니다.³⁾
- 3 (당신의) 섭리를⁴⁾ 아는 것도 없이 가리는 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⁵⁾

2) 이 구절은 '어떤 계획이든 당신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은 없다'로 옮겨질 수도 있다. 이때 '메짐마'(מַעֲמָמָה) 계획, 목적)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다. 그렇지만 위에서처럼 번역하는 경우 '메짐마'는 중립적 용어이며(L. G. Perdue, *Wisdom in Revolt. Metaphorical Theology in the Book of Job*, JSOT 112 [Sheffield: Almond Press, 1991], 235 참조) 이 구절은 단지 욥이 야훼에게 능력이 있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고백이 배혜못과 리위야단에 대한 야훼의 발언 다음에 이어진다는 사실은 그 말이 질서와 정의의 관점에서 야훼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게 한다.

3) 케티브(kethib)는 '야다'(יָדָה)의 2인칭 단수 남성이며, 케레(qere)는 1인칭 단수이다. 여기서는 케레(qere)를 따른다.

4) '에차'(עֵצָה)는 여기서 계획 또는 섭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HALOT 867 참조.

5) Th. F. Dailey, "'Wonderously Far from Me' The Wisdom of Job 42:2-3", *BZ* 36 (1992), 263과 각주 3은 '미 제'(מִי־יָדָה)에서 지시 대명사 '제'가 의문 대명사 '미'의 의미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 순히 첨가된 것으로 보고 이를 '도대체 누가(whosoever)'로 옮기지만, 대화상황에서 이 말은 상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은 실질적인 의미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38:2의 질문과 42:3의 인용은 본문 안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갖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아래 각주 6 참조).

그러니⁶⁾ 깨닫지도 못하며⁷⁾ 말하였고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습니다.)⁸⁾

- 4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당신께 여쭙으니 저로 알게 해주십시오!
- 5 저는 귀동냥으로 당신에 대해 들어왔습니다.⁹⁾
 그런데 이제 제 눈이 당신을 뵙니다.

6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고¹⁰⁾ 위로받을 것입니다/생각을 바

6) ‘라켄’(לָכַן 그러니)은 3a α 절의 인용문과 ‘라켄’ 이하가 일종의 인과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E. J. van Wolde, “Job 42:1-6”, BETL 114, 230은 이를 3a α 절뿐만 아니라 2절과도 연관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비록 그는 3a α 절의 인용을 읍의 대답으로 보지는 않지만, 읍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면서도 2절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서 ‘이/이것’을 가리키는 ‘제’(אני)는 자신을 낮추어 지칭하는 말로 이해된다.

7) 웨(וּ)로(אֵל)PK(미완료)의 접속사 ‘웨’는 관계대명사, 역접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부대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 않고, …함이 없이, …하지 않으면서’

8) 2절과 3절은 생략된 요소를 감안하면 각각 abxb와 abca'xc'xb"c"의 평행법 구조를 보인다. 이것은 ‘니프라오트’(רִישׁוֹן)를 ‘에차’(עָצָה)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Th. F. Dailey, “Wonderously Far from Me”, 263처럼 니프라오트를 부사로 바꿔 번역할 이유는 없어진다.

9) ‘쉐마티카’(שְׁמַעְתִּי)는 JPS처럼 ‘당신(의 말)을 들었다’로 옮길 수도 있지만, JPS는 이를 위해 ‘레-쉐마 오젠’(לִשְׁמַעְתִּי)을 ‘내 귀로’라고 옮긴다. 그러나 이것은 ‘귀로 들은 소문으로’를 뜻하므로 JPS의 번역을 지지하지 않는다.

10) 6절의 문제들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Th. F. Dailey, “And Yet He Repents - on Job 42:6”, ZAW 105 (1993); Th. Krüger, “Did Job Repent?”, Th. Krüger u.a., eds.,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Beiträge zum Hiob-Symposium auf dem Monte Verita vom 14.-19., ATANT 88*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7), 217이하 참조. ‘마아스’(מָאָס)는 형태는 같지만 어원이 다른 두 그룹으로 나뉜다. ‘마아스’ II는 ‘눅다, 용해되다’(Gesenius. 이와 달리 HALOT 541은 ‘ni, 잘못하다, 어기다, 범하다’의 뜻을 제시한다)를, 마아스 I은 ‘거절하다, 거부하다, 취소하다’를 뜻한다. ‘마아스’는 읍기 5:17; 8:20; 9:21; 10:3; 19:18; 30:1; 31:13에서 처럼 목적어를 취하면 어렵지 않게 ‘마아스’ I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읍기 7:16; 34:33; 36:5; 42:6에서처럼 목적어 없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 그것이 마아스 II인지 아니면 목적어가 생략된 마아스 I인지는 문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읍기 7:16의 ‘마아스’는 ‘마아스’ II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W. Morrow,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JBL 105 (1986), 214; Th. Krüger, “Did Job Repent?”, 224-225), 문맥에는 오히려 ‘마아스’ I이 더 적절하게 보인다. ‘마아스티’(מָאָסְתִּי)는 ‘하달 밌멘 니’(מִנְתִּי לִי) 나를 홀로 놔두십시오/나를 상관하지 마십시오)와 대구를 이루기 때문이다. 7:16의 문맥은 그 목적어가 ‘사는 것’임을 시사한다. ‘사는 것을 거부하다.’ 이를 풀어서 말한다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가 될 것이다. 읍기 34:33의 경우도 ‘마아스’ I로 읽어야 한다. 34:31-32로부터 33절의 생략된 목적어는 ‘회개하다’임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읍기 36:5에서는 야훼의 힘 또는 능력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마아스’ II로 읽을 수 있다. 그는 ‘눅지’ 않으신다 곧 ‘지치지’ 않으신다. 그렇다고 ‘마아스’ I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 36:6과 비교하면 36:5는 그 목적으로 의인과 악인을 모두 포함하며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에 대해 행동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함축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 살피기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이다’.

따라서 읍기에서 ‘마아스’의 목적어가 명시되어 있든 있지 않든 ‘마아스’는 일차적으로 ‘마아

꾸졌습니다.

(비록) 티끌과 재 위에 (있지만)/(바로) 티끌과 재 위에서.¹¹⁾

7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들을 하신 다음

야훼께서는 데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노가 너와 네 두 친구들을 향해 들끓는구나.

참으로 너희는 내 중 욥처럼 내게¹²⁾ ‘바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

야훼의 욥 인정이 표면적으로는 7절 발언의 중심이 아니지만 그 바탕이라는 점에서, 7절은 욥이 야훼의 능력을 인정하는 2절과 짝을 이룬다. 5절은 욥의 4절 질문에 대한 응답을 전제하는 고백이며, 양자는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사이에는 빈자리(gap)가 있다. 3절과 6절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무지한 말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각각 짝을 이룬다. 따라서 2-7절은 4-5절 사이의 빈자리(gap)를 중심으로 하며 낱말이나 어구의 차원이 아니라 ‘주제면’(thematisch)에서 교차법 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A 2 욥의 야훼 인정
- B 3 욥의 무지 인정
- C 4 욥의 질문과 요청
- C' 5 그 응답에 대한 욥의 반응
- B' 6 무지한 말 하지 않겠다는 욥의 다짐
- A' 7 야훼의 욥 인정

스' I로 읽어도 무리는 없다. 이는 42:6에도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철십인역은 이를 ‘마아스’ II로 읽고 ephaulisa emauton kai etakēn (I despised myself and fainted)으로, 쿨란 타르굼 욥은 'tnsk w'tmh(I am poured out and dissolved)라고 각각 두 개의 낱말로 풀어 옮긴다(W. Morrow, “Job 42:6”, 213; D. Shepherd, *Targum and Translation: A Reconsideration of the Qumran Aramaic version of Job*, SSN [Assen: Van Gorcum, 2004], 232 참조). 이는 현재 본문의 교차법적 구조 때문에 3절이 6절과 결합되어 있고 4-5절이 6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결과로 추정된다(목적어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 11) 여기서는 아트나흐(attnach)를 ‘니합티’(נִּחַטִּי) 아래 둔 마소라 본문(MT)을 따라 ‘알’(עַל) 이하를 따로 떼어 읽고, 전치사 ‘알’은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보다 세밀한 의미는 동사들의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 Wolters, “A Child of Dust and Ashes”, *ZAW* 102 (1992), 116-119는 랍비 타르굼 욥(RTg.Job)에 의지하여 전치사 ‘알’을 ‘올’로 고쳐 ‘티끌과 재의 아이’로 읽을 것을 제안하지만, 랍비 타르굼 욥과 마소라 본문의 차이는 전자를 그러한 주장의 근거로 삼기 어렵게 만든다.
- 12) 전치사 어구 ‘엘라이’(אֵלַי)는 ‘나에게’ 또는 ‘나에 대하여’를 뜻할 수 있다. 욥기에서 ‘다바르+엘’(דְּבַר אֵל)과 ‘아마르+엘’(אָמַר אֵל)은 ‘...에게 말하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에 대해서는 M. Oeming, “Ihr habt nicht recht von mir geredet wie mein Knecht Hiob.’ Gottes Schlusswort als Schlüssel zur Interpretation des Hiobbuchs und als kritische Anfrage an die moderne Theologie”, *EvTh* 60 (2000), 112-114와 각주 43과 44 참조. 여기서 ‘나에게’로 옮긴 것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이 구조는 욥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시 부분에서 산문체로의 이행은 돕고, 야훼의 욥 인정을 강조한다.

2-3절은 욥이 야훼의 첫 번째 폭풍 속 발언에 응답하는 40:4-5과 평행을 이루고 야훼가 욥에게 질문하고 명령하는 38:2와 38:3; 40:7에 상응한다.¹³⁾

40:4-5		42:2-3		38:2; 38:3; 40:7
자신의 부족 인정 ¹⁴⁾	↔	야훼 능력 인정	↔	‘이’ 자가 누구냐?
언어행위 중단	↔	무지에 의한 언어행위 인정	↔	나로 알게 하라/나를 가르치라

38:2-3에서 야훼가 욥에게 섭리를 어둡게 하는 자라고 비판한다면, 42:2-3에서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그 비판을 수용한다. 비판과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구절들은 서로 짝을 이루며 38:1-48:3을 앞뒤에서 포괄한다. 이는 42:1-7의 단락 안에서 1-3절과 4절 이하가 구별됨을 의미한다.¹⁵⁾

3. 구조에 따른 본문 이해

3.1. 4-5절

4a절은 욥 자신의 발언인 13:22a: ‘우-케라 웨-아노키 에에네’(אֲנִי וְאֵלֹהֵי אֲנִי)와 유사하고(14:15a도 참조), 4b절은 야훼의 말씀인 38:3b; 40:7b절과 동일하다.¹⁶⁾ 이 구절은 야훼가 물췌다고 하신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한 인용인가¹⁷⁾ 아니

13) 38:1-42:3은 발언자를 중심으로 38:1-40:2; 40:3-5; 40:6-41:26; 42:1-3(aba'b')의 평행구조를 보인다.

14) 입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욥 21:5; 29:9; 잠 30:32; 사 52:1; 미 7:16 참조.

15) 쿵란 타르굼(11Q10=11QTg.Job)은 3절과 4절 사이에 40:5에서 욥이 한 말을 덧붙인다.

ḥdh mlit w'l atyb wtrtyn w'lyhn l'wsp

이는 쿵란 타르굼이 3절의 반성에 결심을 덧붙임으로써 욥의 태도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이때 4절을 인용문으로 보고 “주님께서 ... 말씀하셨습니다”을 덧붙여 양보절로 읽는다면, 그 의도는 한층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쿵란 타르굼은 MT와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첨가된 40:5는 3절에서 반성한 것과 같은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4절의 요청은 그러한 말과 다른 말임을 또한 분명하게 보여준다.

16) 한글 『표준새번역』과 E. J. van Wolde, “Job 42:1-6”, 232-233는 42:4 전체를 야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고 “주님/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첨가한다.

17) E. J. van Wolde, “Job 42:1-6”, 232-233는 인용과 함께 욥이 야훼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말한다. 그는 3-4절이 가리키는 야훼의 발언과 질문-대답의 계임에 대해 욥이 5-6절에서 답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는 3절의 ‘아노키’에 대해 욥이 다른 화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렇게 보는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231). 13:22a는 상대가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면, 그러면 ‘나는 ... 하겠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구절과의 유사한 구조는 그

면 야훼의 말을 인용한 욥 자신의 발언인가? 칠십인역은 야훼를 부르는 ‘퀴리에’(주님!)를 첨가하여 읽음으로써 본문이 욥의 말임을 분명히 한다. 3a α 의 질문은 인용이면서 그 자체가 동시에 답변을 함축한다(아래 참조). 이와 달리 4b절이 물음에 답하기 위한 인용이라면 그것은 문맥 안에서 아무 기능도 갖지 못한다.¹⁸⁾ 그는 이미 40:3-5와 42:1-3에서 야훼의 폭풍 속 발언에 대답했기 때문이다. 4b절이 비록 38:3b; 40:7b와 동일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13:22b에 비취 읽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오 아답베르 베크-하쉬베니’(אוֹ אֲדַבְּרֵי בְּעֵינֵי הַשָּׁמַיִם). 어법은 더 직설적이지만 내용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31:35도 참조). 어조의 변화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4b절은 욥이 야훼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꿔 야훼에게 대답을 요청함으로써 13:22b에서 드러난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는 42:4a와 38:3a; 40:7a의 차이가 42:4a의 ‘쉐마-나 베크-아노키 아답베르’(שְׁמַע נָא וְאֲנֹכִי אֲדַבְּרֵי)를 욥이 야훼에게 하는 말로 읽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¹⁹⁾

4절은 abb'a의 구조로 볼 수 있고, 4a절의 청탁이 4b절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이러한 4절은 2-3절에서 욥이 야훼를 인정하고 비판을 수용함으로써 완결된 듯 보이는 야훼와의 대화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이는 야훼 현현 경험의 결과 욥의 지혜가 새로운 차원의 것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야훼를 향한 질문과 응답 요청은 욥의 야훼 인정과 고백의 의미를 제한한다. 수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2-3절은 말하는 자가 먼저 상대의 논지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입장을 피력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이

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보여줄 것이다.

18) M. Eisemann, *Job. A New Translation with Commentary Anthologized from Talmudic, Midrashic, and Rabbinic Sources*, ATS (New York: Mesorah Publications Ltd., 1994), 361-362에 따르면 42:4는 13:22와 38:3을 풀어서 또는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서 욥이 당황하여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지난 일을 돌아보고 자문자답하며 반성하는 것이며, 5-6절은 그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욥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3절 다음에 그러한 반성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또 그러한 반성 다음에는 다짐이 이어지는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은 5절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따라서 4절을 내적 반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D. Iwanski, *The Dynamics of Job's Intercession*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2006), 262 이하는 3a β b절이 과거 욥의 무지와 현재 욥의 지식을 함께 지시하는 것으로 과거에 무지해서 부조리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제 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또 모르고 말했던 과거의 발언들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Th. F. Dailey, “Wonderously Far from Me”, 263도 욥의 지혜 획득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문제는 이러한 3a β b절이 이를 둘러싼 3a α 절과 4b절의 자유로운 인용구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19) E. J. van Wolde, “Job 42:1-6”, 241은 ‘에자르-나...’(עֲזָרָנָא 38:3a α ; 40:7a α)와 ‘쉐마-나’(42:4a α שְׁמַע נָא)를 유사한 것으로 보지만, 유사점은 형태가 모두 명령형이라는 점 뿐이다. 전자가 강압적 어투라면, 후자는 청탁형/설득형 어투다. 이 차이는 양자를 모두 야훼가 욥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를 보다 쉽게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2-3절과 4절의 이 같은 관계는 일반 견해와 달리 야훼의 폭풍 속 발언이 욥에게 충분한 답이 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30:20에서 욥은 야훼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탄식하고, 31:35에서는 샷다이가 듣고 답해줄 것을 소원하였다. 38:1과 40:6(40:1도 참조)은 38-41장*을 야훼가 욥에게 대답하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이때 야훼는 자신의 창조능력 과 활동들을 내세우며 욥, 보다 정확하게는 인간의 무능을 욥에게 인정하라고 심문하듯 추궁하고 대답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40:3-5와 42:1-3의 대답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욥의 질문은 그가 야훼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에게 야훼의 고압적인 발언은 그의 현실과 별로 관련성 없는 발언인 셈이다.²⁰⁾ ‘좀 들어주시면 제가 말하겠습니다.’²¹⁾ 제가 물어보겠으니 깨우쳐 주십시오’.

욥이 야훼에게 묻고 깨우쳐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언급되지 않고 단지 동사들만 열거됨으로써 그의 절박함이 더욱 부각된다.²²⁾ 생략된 목적어는 38:1저 너머 1-2장의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무질서와 혼란의 상징인 베헤못과 리워야단 조차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안에 편입되어 있고 역사에 개입하여 역사의 혼란을 제거한다면(40:11-13 참조), 욥 자신이 겪는 ‘무질서와 혼란’은 그에게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²³⁾ 야훼 현현으로 인간의 인식과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 ‘무지한’ 욥에게 그의 고난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요 야훼만이 답할 수 있는 문제다.

욥 자신의 호소로 이해된 4절은²⁴⁾ 그에 대한 야훼의 응답을 기대하게 하지만, 5절은 그 응답이 아니다. 5절은 익히 들어왔던 사람과 처음 만나 하는 인사말과 닮았기 때문에, 그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욥이 4절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기 전까지 계속된 폭풍 속 야훼와 욥의 대화에 비춰보면 뜻밖이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었을까? 이 물음은 4절과 5절 사이에 빈자리(gap)가 있음을 추론케 한다. 5절은 욥이 기대했던 응답에 대

20)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185와 하경택, “욥 탄식과 하나님 발언의 관계성 연구”, 『구약논단』 22 (2006), 113은 하나님의 발언이 욥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읽는다. 42:7과 연관시켜 본다면, 그러한 이해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21) 4절은 명령문 + 뱀-PK(미완료형) / PK(미완료형) + 뱀-명령형 구문이다. 따라서 이 구절의 문법 구조는 교차법으로 짜여 있다. 상반절의 명령은 일종의 조건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22) 시 88 편 참조.

23) C. Mathis, “‘Sieh doch den Behemot!’ Die zweite Gottes Rede Ijob 40:6-41:26”, *BN* 112 (2002), 85.

24)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199-200은 4절을 하나님의 두 번째 연설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모습을 목격한 후에 깨달은 욥의 응답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4절의 질문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여쭙겠다는 구도자적 결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지만, 본문이 명령형이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한 그의 반응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4절과 5절 사이의 빈자리에는 말로 옮길 수 없는 야훼의 응답이 숨어 있다.²⁵⁾

4절과 5절을 이렇게 읽으면,²⁶⁾ 이는 탄식시들이 아무 언급 없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곧바로 옮겨가는 것에 비교된다. 때로 탄식시들은 짙막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말로 그러한 이행의 계기가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²⁷⁾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것이다.²⁸⁾ 하지만 여기서는 그 만남이 이미 전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건’은 야훼의 폭풍 속 말씀으로 이어지지만 그것과 구별되는 다른 사건이다. 5절은 38-41장이 보도하는 야훼의 폭풍 속 발언이 아니라 보도되지 않은 그 이후 다른 사건의 결과다. 5절이 고대하던 이와 처음 만나는 감격을 일상 언어로 담아내고 있다면, ‘말할 수 없음’은 그에게 존재의 새 지평을 열어주는 새로운 경험을 나타낸다.

4절과 5절 사이의 빈자리를 이렇게 읽는다면, 38-41장의 성격은 새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텍스트 안에서 야훼의 개입 계기는 엘리후의 발언으로 마련된다.²⁹⁾ 특히 36:22 이하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도록 길을 여는 역할을 한다. 38:2에서 드러나는 야훼의 참여 동기가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엘리후의 바통을 이어받아 욥과 친구들과의 논전에 친구들 대신 가담하신다.³⁰⁾ 물론 그 동기는 욥에게 그의 현재가 죄의 결과임을 확신시키려는 친구들의 목표와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야훼는 욥이 그 앞에서 무지한 말로 그의 ‘에차’(עֵצָה) 섭리, 계획)를 어둡게 하는 잘못을

25) A. M. Olson, “The Silence of Job as the Key to the Text”, *Semeia* 19 (1981), 116은 38장 이하의 겁주는(terrifying) 하나님 앞에서 욥이 취할 수 있는 행위는 “침묵” 뿐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욥은 42:5에서 ‘보는’ 데 이르렀다고 한다. 덧붙여 그는 욥이 변증법적 객관적 사유가 실패 내지 침묵하는 곳에서 그의 비참한 경험이 구원의 경험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침묵은 욥의 침묵이 아니라 본문의 침묵이며, 이 침묵은 사건보도의 방식으로서의 침묵이다. 비참한 경험이 구원의 경험으로 바뀌는 계기도 욥의 침묵이 아니라 침묵 가운데 보도되는 사건이다.

26) 5a절은 5b절과 평행을 이룬다. 귀 - 눈,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제는, 듣다 - 보다, 당신 - 당신. 이것은 신인식의 차이를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들어서 알던 야훼와 봐서 알게 된 야훼를 비교하지 않으며, 들었던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에 대해 많이 들어 왔는데, 이제야 뵈게 되었습니다’는 정도의 말로 이해된다.

27) 예외적으로 시편 73편은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 보도한다.

28) J. Ebach, *Streiten mit Gott Hiob*, Bd. 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156은 4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5절의 문제를 인식하지만, 욥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야훼의 폭풍속 현현으로 보기 때문에, 두 구절의 관계와 그 의미에 대해 묻지 않는다.

29) B. Zuckerman, *Job the Silent*, 147은 엘리후의 이야기는 신 현현의 극적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보며, 엘리후 이야기의 저자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유죄와 야훼의 법적 무죄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야훼를 변호하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 이해한다(150-151). 이에 대해서는 욥 32:2-3; 36:2-3 참조.

30) D. Pellauer, “Reading Ricoeur Reading Job”, *Semeia* 19 (1981), 79도 동일한 입장임을 글이 완성된 다음에야 알게 되었다.

범했다고 지적하며 그로 하여금 이를 인정하고 승복하게 하려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야훼의 섭리를 어렵게 하는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야훼는 이것을 그의 고난과 연관 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구들과 다르다. 자신이 창조 활동의 주체임을 수사학적으로 강조하는 야훼의 폭풍 속 발언은 무엇보다도 3장에 있는 욥의 창조 부정 발언에 이어진다.

그리고 야훼의 그 목적은 두 단계를 거쳐 실현된다. 40:3-5에서 욥은 상대의 힘에 압도된 자처럼 창조주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단지 그것뿐이다. 이는 40:4에서 손으로 입을 막는 몸짓으로 상징된다.³¹⁾ 거기에는 자신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 없다. 단지 승복할 뿐이다. 욥이 42:3에서 비로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이로써 야훼의 개입목적은 일단 달성된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그의 대답은 아직 소극적이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야훼의 폭풍 속 발언은 여전히 그의 물음을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5절의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וַעֲתָה עֵינִי רְאִיתִי)는 4절의 ‘깨우쳐 주십시오’(וַהֲרִיעֵנִי)라는 호소와 짝을 이루며 ‘무지’로부터 ‘앎’으로의 전환이 그에게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2-3절에서 야훼 현현 경험과 함께 획득한 지혜와 신 인식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깨우침을 호소해야 했던 욥에게 이 전환은 또 다른 전환을 야기한다. 3절로부터 6절로의 전환이다.³²⁾ 3절이 단지 무지와 이에서 비롯된 자신의 방자함(?)을 인정하는 데 그친다면, 6절은 인식 변화에 따른 태도 변화를 말한다.³³⁾ 3절과 6절이 이렇게 짝을 이룬다면, 6절의 문맥은 6절과의 거리에 따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경우에는 수사법을 통해 구조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6a절 ‘마아스’의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면, 그 목적어는 3절에서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³⁴⁾

3.2. 3절과 6절

3절은 ‘알지 못한다’를 강조하기 위해 변형된 평행법 구조로 되어 있다.³⁵⁾ 또한 ‘그러니’(לְכֵן)는 3a α 절과 3a β 절 사이에 논리적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3a α 절은 38:2를 인용하면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한다. 특히 ‘말로

31) J. Ebach, *Streiten mit Gott*, 140; 위의 각주 14 참조.

32) 6절을 폭풍 속 야훼와의 만남의 결과로 보는 예에 대해서는 Th. F. Dailey, “On Job 42:6”, 209 참조.

33) E. J. van Wolde, “Job 42:1-6”, 248도 이 대목에서 태도의 변화를 말한다.

34) ‘마아스’의 의미에 대해서는 각주 11 참조.

35) 3a α מִי יָדָה מַעֲלִים עֲצָה בְּלִי דַעַת

3a β לָכֵן הִנְדִּיתִי וְלֹא אֲבִין

3b נִפְלְאוֹת מִמֶּנִּי וְלֹא אֲדַע

씨' (בְּמִלִּין)의 생략으로 '가리다'(מַעֲלִים)는 '말하다'(הִתְהַדָּה)와 분명하게 대비되면서 '말하다'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는 38:2의 인용이 그에 대한 답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대답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3b절의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בְּפִלְאוֹת מִמֶּנִּי)은 '섭리'(עֲצָה)와 짝을 이루며 후자의 의미를 밝힌다. 이로써 욥은 자신의 이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말했음을 인정한다.

3절은 자신의 언어행위가 무지의 소산이었음을 인정하고 강조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한 기대와 상반되는 4절의 질문은 그러한 인정의 수사학적 기능을 드러내 보여준다. 3절의 인정은 질문하기 위한 초석 역할을 한다. 5절은 그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을 것으로 추론하게 하며, 그러한 것으로서 욥이 3절에서 기대하게 했던 조치, 곧 6절의 다짐을 준비시킨다.

마소라 본문의 6절은 분절장치인 '아트나흐'가 '웨-니함티'(וַיִּחַמְתִּי) 아래에 있어서 '알'(עַל) 이하의 전치사 어구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반면에 '웨-니함티'(AKwaw: w^c-완료형)'는 '엠아스'(אִמָּאֵס: אִמָּאֵס의 PK 1 단)'의 시상을 그대로 이어받으며³⁶⁾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생략된 마아스(אִמָּאֵס)의 목적이 후보로 제시되는 것들은 3절에서 고백한 몰라서 한 말들 내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니플라오트'(בְּפִלְאוֹת) 또는 5절에서 말하는 귀로 들은 것들 또는 6b절 '니함 알'(עַל נִחַמְתִּי)의 목적이 '아파르 웨-에페르'(אָפָר וְעֵפֶר) 등이다.³⁷⁾ 그러나 2-7절의 교차법 구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목적어를 5절이나 6절에서 찾는 시도는 처음부터 의문시된다. 문법적 가능성은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하다. 6절은 3절과 함께 읽어야 하고 동시에 4-5절 사건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6절은 3절과 연관되지만 그렇다고 3절의 단순 반복은 아니다. 3절은 자기의 한계 밖의 일을 '모르면서' 말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의지의 표현인 '엠아스'가 이와 관련된 목적어를 취한다면, 그것은 3절에 언급된 특정 낱말 곧 '니플라오트'나 3-31장에 있는 그의 특정한 언설들을 염두에 두었다기보다 모르고 말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어야 문맥에 더 잘 어울린다. 과거에 했던 말의 취소는 이미 모르고 말했다는 3절의 고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다짐

36) Th. Krüger, "Did Job Repent?", 219도 동일한 입장이지만, 마아스를 mss의 니팔형 또는 마아스 II로 본다는 점이 다르다(224-225). 그는 4-5절 때문에 6절과 3절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아스를 목적어 없는 자동사로 다룬다(225). 그러나 교차법적 구조를 감안하면 그러한 연관은 가능해진다.

37) 42:6의 번역 예들에 대해서는 T. W. Tilley, "God and the Silencing of Job", *Modern Theology* 5 (1989), 260과 269 각주 13 참조. W. Morrow, "Job 42:6", 215 이하도 아울러 참조.

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아스’는 ‘(이전에 한 말들을) 취소하다, 철회하다’ 등으로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읽고자 한다.³⁸⁾ 여기에는 그가 하나님을 고통의 근원으로 인식하고 알고자 하나님에게 질문했던 행위도 포함될 것이다.

마소라 본문의 ‘아트나흐’를 그대로 두고(각주 11 참조) ‘마아스’를 이렇게 이해할 때, 그와 짝을 이루는 ‘니함’은 ‘마아스’에 담긴 다짐을 단순히 달리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니함’(니팔형)은 ‘후회하다, 마음/생각을 바꾸다’ 또는 ‘위로받다, 위안삼다’³⁹⁾를 의미한다. ‘마음/생각을 바꾸다’는 예컨대 하나님이 의도했던 심판을 철회하기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렘 18:8 참조). 그것은 ‘후회하다’로 옮겨지는 창세기 6:6; 사무엘상 15:11, 35에서도 이미 행해진 일의 바꿈을 수반한다. 이를테면 ‘니함’은 감정적 의미의 ‘후회하다’가 아니라 ‘후회하게 하는 것의 바꿈’을 내용으로 한다.⁴⁰⁾ ‘아트나흐’에 의해 분리된 전치사 어구의 ‘알’이 장소를 나타내고 동사의 목적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니함’은 그 대상이 무엇이든 ‘마음/생각을 바꾸다’는 것만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목적어가 생략된 ‘마아스’와 가장 잘 어울리는 번역인 것처럼 보인다.⁴¹⁾ ‘마아스’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관련된다면, ‘니함’은 그러한 행위를 낳는 생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아스와 니함은 일종의 ‘메리즘’(merism)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전치사 어구는 단순히 장소를 나타내기보다는 시간적 의미를 추가로 갖고 “바로 티끌과 재 위에서”로 옮겨질 수 있다.

그러나 ‘니함’이 ‘위로받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니함’(피엘형)은 2:11에서 친구들의 방문목적을 나타내지만, 그들은 이 목적을 역으로 성취한 자들이라고 비판당한다(16:2; 21:34). 또한 6:10과 7:13에서 욥은 위로를 찾는 자로 나타난다. 이는 자신이 위로자 역할을 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대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29:25). 위로가 욥이 찾는 것이라면,⁴²⁾ 다시 말해 2:11의 ‘니함’(피엘형)과 42:6의 ‘니함’(니팔형)의 대비가 우연이 아니라면, 42:6의 ‘니함’(니팔형)은 ‘위로받다’ 이외의 의미로 읽기 어렵고,⁴³⁾ 따라서 2:11과

38) B. L. Newell, “Job: Repentant or Rebellious?”, *WTJ* 46 (1984), 314-315 참조. 그는 이러한 문맥을 정확히 언급하지 않고 my speaking without understanding을 지적한다.

39) 이때 ‘니함’은 재귀용법의 니팔형이다.

40) H. J. Stoebe, “**נחם** niḥm pi. to Comfort”, *ThLOT Bd.2*, 734-739, 738 참조.

41) J. Ebach, *Streiten mit Gott*, 155-160도 그러한 입장이다. 이환진, “욥이 옳은가? 친구들이 옳은가? - 마소라 본문 욥 32:1의 ‘그는 그의 눈에 옳다’(hw' sdyq b'nyyw)란 표현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64 (2009), 20-22는 전치사 ‘알’을 ‘니함’과 결합시켜 본문을 읽는다. 안근조, 『지혜 말씀으로 읽는 욥기』, 200-201도 동일하다.

42) 21:2는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위로라고 규정한다.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42:4도 이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43) 친척과 친지들이 그를 찾아와 위로하였다(니함 피엘형)는 42:11도 위로가 이야기의 중요한 요

42:6은 이야기의 관점에서 이야기의 축을 구성한다.

서로 경쟁적인 이 가능성들 가운데 2장의 상황은 후자를 지지한다. 여기에는 티끌(תִּפְלָא)과 잿더미(רֶפֶס)가 서로 결합되어 나오지는 않지만, 8절에 따르면 욥은 잿더미 가운데 앉아 있고(וַיֹּשֶׁב בְּרֶפֶס וּבְתִפְלָא), 13절에 따르면 친구들은 티끌(תִּפְלָא)을 뒤집어쓰고 욥과 함께 땅바닥(אֲרָצָה)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양자가 결합된 42:6은 욥의 현재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장에서 만신창이가 된 욥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친구들에게 침묵의 위로를 받고 있다. 위로가 비록 3장 이후 치열한 논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42:4-5 사이의 (보도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사건이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있는 욥에게 최종적으로 위로의 사건이 된다면 두 장면의 비교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티끌과 잿더미, 곧 고난과 탄식의 자리가 고백과 위로의 자리로 바뀐다. 장소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 어구는 욥의 위로가 아직 그가 티끌과 재 위에 있을 때, 그 몸이 아직 고통에서 벗어나기 전에 일어남을 강조한다. 전치사 어구가 장소의 의미에 국한된다면, ‘마아스’는 본래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어구는 ‘니함’과만 관련된다. 이로부터 칠십인역이나 콤란 타르굼처럼 아트나흐를 ‘엠아스’ 아래로 옮겨 읽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그러나 ‘니함’은 ‘알’과 결합하여 목적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티끌과 재’를 목적어로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제기된다. 칠십인역과 콤란 타르굼은 이렇게 읽는 것의 문제점을 감추지 않는다. ‘니함티 알’을 ἰννομαι(생각하다, 간주하다)로 고쳐 읽고 콤란 타르굼은 ‘웨-에흐웨’(w-’hw) 나는 …이 되었다)로 바꾸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들을 따라 ‘아파르 웨-에페르’를 ‘니함 알’의 목적어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니함의 기본 의미가 후회하고 바꾸는 것이며 그 대상은 의도나 계획 또는 지난 행위와 그 결과인데, ‘아파르 웨-에페르’는 이것들과는 무관하다. 사람이 ‘티끌과 재’라는 것은 후회하고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그것은 비유적으로 인간의 보잘 것 없음이나 무가치함을 나타내기도 한다.⁴⁴⁾ 이 경우 ‘아파르 웨-에페르’와 관련된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나타내는 말이 ‘니함 알’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30:19에서 욥은 ‘그가 나를 진흙 속에 내던지셨으니 내가 티끌과 재처럼 되었다’고 자신의 현실에 대해 탄식한다. 그는 인간이 ‘티끌과 재’와 같다는 것 자체에 대해 탄식하지 않는다.

소임을 보여준다.

44) 창세기 18:27에서 아브라함은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하지만’이라고 하나님에게 말한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비의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니함 알’의 목적어가 ‘아파르 웨-에페르’라면, ‘니함 알’의 의미가 달라져야 하며, 그 대안은 ‘니함 알’을 재귀용법의 니팔형 곧 ‘…에 위로받다’에서 찾을 수 있다. ‘티끌과 재(인 것)에 위로받다.’⁴⁵⁾ 이러한 시도 역시 본문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욥기 전체의 상황에 비춰보면 의미가 없지 않다. 탄식의 이유였던 것이 위로의 ‘이유’로 전환된다. 42:5-6을 고쳐 읽고 30:19-20과 함께 읽으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진다.

30:19-20⁴⁶⁾

그가 나를 진흙 가운데 내던지셨으니 내가 티끌과 재처럼 되었구나.

내가 당신께 계속 부르짖어도 당신은 대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서 있어도 당신은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십니다.

42:4-6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당신께 여쭙으니 저로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귀동냥으로 당신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뵙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며
티끌과 재(인 것)에 위로받을 것입니다.

욥기 본문은 현재 ‘아트나흐’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 가능성을 단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해석 가능성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욥이 4-5절의 결과, 티끌과 재 위에서 자신의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인정과 자신의 무지 고백, 그리고 자신의 현실 수용과 다짐, 욥이 회개한다면 바로 이것이 회개가 아닐까?⁴⁷⁾ 이로써 욥은 다시 1-2장의 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욥은 1-2장에서처럼

45) L. G. Perdue, *Wisdom in Revolt*, 237 각주 1; E. J. van Wolde, “Job 42:1-6”, 249-250이 그러한 입장을 취한다. 반 볼트(Van Wolde)는 ‘아파르 웨-에페르’를 ‘마아스’와 ‘니함 알’의 공통 목적어로 간주한다. 그는 3절과 6절의 관계를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구문론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렀다. 그 자체로서는 문제이지만, ‘니함 알’을 재귀용법의 니팔형으로 보고 ‘위로받다’(comfort oneself)로 해석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거기에 ‘회개하다’는 뉘앙스를 함께 덧붙인다.

46) 19:25-27도 참조.

47) 고백과 다짐은 회개의 핵심 내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6aβ절의 ‘니함’(니팔형)을 ‘회개하다’로 읽으면 이야기의 흐름을 정체 내지 역류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의 내용과 구조도 그렇게 옳기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특히 이 낱말이 여기서만 그렇게 옳겨진다면, 그러한 인상은 더 커지게 마련이다.

전통에 따라 행동하고 말했던 욥이 아니라 탄식과 만남으로 인해 새로워진 욥이다. 티끌과 재 위에서 티끌과 재를 넘어서는 것을 경험한 욥이다.

3.3. 2절과 7절

인정을 축으로 이 구절들은 형식의 차이를 넘어 서로 연관된다. 2절이 보여주는 욥의 야훼 인정이 창조와 역사에 대한 야훼의 38:1-41:26* [H41:34*] 발언에 근거한다면, 7b절의 야훼의 욥 인정은 그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8:2에서 욥의 그 이전 발언은 무지한 말이라는 비판을 받고 또 욥은 40:3-5; 42:1-3에서 이를 인정한다. 그렇다고 그 근거를 야훼의 폭풍 속 말씀에 대한 욥의 응답에서 찾는다면 불공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욥 인정의 근거는 38:1-42:6의 야훼와 욥의 대화가 아니라 3-31장의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서 찾아야 한다. 야훼의 욥 인정 근거만큼 7a절의 ‘이 말씀들’도 무엇을 지시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 구절은 마치 욥의 42:1-6 답변을 모르는 것처럼 들린다. 7a절이 38-39장*의 첫 번째 폭풍 속 발언이나 40:6-41:34*의 두 번째 폭풍 속 발언 바로 다음에 이어지면, 그 어구가 지시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러면 38:2나 40:7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욥의 응답이 필요 없는 요구가 되고 만다.⁴⁸⁾ 7절이 42:1-6을 알고 있었다면, 7절은 다른 경우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히 ‘이 일들 후에’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본문의 지시관계가 모호한 것은 형성사의 결과로 이해된다.⁴⁹⁾ 또 7절에는 엘리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가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엘리후의 발언이 뒤늦게 첨가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욥기 형성 과정에서 비롯되었을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7절은 욥을 친구들과 달리 ‘네코나’(נֶקוֹנָה)를 말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2절과 교환적이다.

여기서 문제는 ‘네코나’가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과 관련하여 무엇을 가리키는 가이다.⁵⁰⁾ ‘네코나’의 의미는 전치사 어구 ‘엘라이’(אֵלַי)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있다. ‘엘라이’는 ‘나에게’ 또는 ‘나에 대하여’를 의미할 수 있다. 후자로 옮기면 ‘네코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다. 반면에 전자이면 ‘네코나’는 자신들의 경험

48) 이것은 야훼의 폭풍 속 발언이 본래 대화형식이 아니었고 38-39장*과 40-41장*의 폭풍 속 발언들은 처음부터 하나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9) 욥기 형성사 개관에 대해서는 J. V. Oorshot, “Die Entstehung des Hiobbuches”, Th. Krüger u.a., eds.,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Beiträge zum Hiob-Symposium auf dem Monte Verita vom 14.-19.*, ATANT 88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5), 165-196 참조. 그는 42:1-6*이 이를 42:7과 연관시킨 편집자에게서 기원한 것으로 본다(182-184).

50) 7b절은 욥의 언어행위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욥이 하나님에게 ‘적절치 못한 것(티플라 tplh)’을 말하지 않았다는 1:22의 판단과 비교될 수 있다(2:10도 참조). 그러나 1:22는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세계 안에 있는 어떤 것일 수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하여 3-31장에서 욥과 친구들이 한 말을 야훼에게 한 말과 야훼에 대하여 한 말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욥	친구들
야훼에게	O	X
야훼에 대하여	O	O

본문 속에서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게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욥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했을 뿐이다. 하나님의 변호인인 것처럼 말했던(36:2이하 참조) 엘리후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로부터 ‘엘라이’를 ‘나에 대하여’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욥도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틀린 것, 참이 아닌 것을 말했는가? 양자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현실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파악한다고 해도(21장 참조) 그렇다고 답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는 욥과 친구들을 비교하는 관점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참을 말했는가가 아님을 시사한다. 게다가 양자의 우열을 말하며 하나님이 화를 낸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비교의 관점을 ‘하나님에게 말했는가’에서 찾는다면 양자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욥은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에게 말을 건넨다.⁵¹⁾ 그는 ‘자기를 버린’ 야훼를 향해 여전히 항의하고 질문을 던진다.

‘네코나’가 그들을 둘러싼 경험세계에 관한 것이라면, 이야기 안에서 그것은 현재 그들의 공통 관심사인 욥의 고난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를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바꿔 말하면, 친구들은 이를 ‘신학적’으로 판단하고 욥을 비난하는 근거로 활용했을 뿐이다. 그들은 ‘네코나’ 곧 욥이 당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하나님에게 말하지 않았다. 소위소치관계(所爲所值關係)의 ‘기계적’ 이해와 적용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들었다.⁵²⁾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여기서 조금이나마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은 친구들이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는 친구 편에 서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다. 보도되지 않은 만남이 함축하고 있던 하나님의 변화를 드러내는 이 분노는 소극적이지만 동시에 욥의 발언에 대한 긍정이다.⁵³⁾ 그런데 욥의 인정은 그의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간접 시

51) 욥기 안에서 전치사 ‘엘’의 용법에 관한 외명의 통계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각주 10 참조).

52) 소위소치관계는 자연과학적 인과율이 아니므로 현재를 바탕으로 과거를 추론할 수 없고, 현재가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기계적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기대하게 하지 않는다(렘 12:1; 계 6:10; 21:3-4 참조).

53) 현재 본문에서 욥은 야훼의 두 차례 폭풍 속 발언과 보도되지 않은 한 번의 만남 등 모두 세 번의 만남을 거쳐 인정받는다. 이것은 민담에서 영웅이 대체로 세 번의 시련 끝에 목표에 이르는

인이며, 더 나아가 1-2장의 사건이 남기고 3-31, 32-37장을 관통하는 이유 없는 고난 문제에 대해 이유 없는 고난은 있다는 우회적인 대답이다. 이는 고난을 신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체계로 담아낼 수 없고 더 나아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음을 증언한다. 동시에 그것은 고난 속의 인간에게 주목하지 않는 ‘신학’에 대한 부정이다.

엘리후의 뒤를 이어 친구들과 비슷하게 욥에게 그의 무지와 무능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던 야훼(!)가 지금은 그들에게 분노하면서 욥을 편들고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한다.⁵⁴⁾ 그래서 야훼는 마치 중재자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 야훼는 그들이 야훼에 대해 말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님을 욥으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야훼에게 말하게 함으로써 보여준다. 야훼에게 말하는 것이 위로자 친구들이 할 일이었다(6:14 참조).⁵⁵⁾

2-7절의 교차법 구조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야훼를 인정했던(2절) 욥이 바뀌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야훼를 인정하고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며 야훼에게 인정받기까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4절과 5절 사이에 있음을 드러낸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unsagbar) 이 사건의 첫머리에는 질문하는 욥이 있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말하겠습니다.

제가 당신께 여쭙으니 저로 알게 해주십시오!

4. 나가는 말

위와 같이 이해된 42:1-7은 사탄이 제기한 ‘보상 없이 야훼를 경외하겠는가?’라는 문제에 직접 답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답한다고 할 수 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져가고, 부인에게 순전함을 잃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탄식을 듣고⁵⁶⁾ 친구들에게 정죄 당함으로써 모든 관계로

것과 비교될 수 있다. 또한 1-2장의 두 번 시련통과와 비교해볼 때 3-31장은 세 번째 시련통과라고 할 수 있다. 1-2장에서는 이야기꾼이 통과를 알지지만, 세 번째는 32:1에서 자신이(마소라 본문) 또는 세 친구들이(케니코트 248, 칠십인역, 심마쿠스, 시리아어 - BHS 비평장치와 이환진, “욥이 옳은가? 친구들이 옳은가?”, 6-8 참조) 통과를 알린다.

54) 야훼와 엘/엘로아흐의 대립적 관계는 특별히 고려되지 않는다(창 22장 비교).

55) 6:14-23; 16:2-4; 17:5; 19:19-22; 21:34 등에서 욥은 친구들의 행태를 비판한다.

56) 아내의 말(2:9)은 수사학적 의문문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 독법이지만, 평서문 그대로 읽는 것이 더 문맥에 타당할 것이다. “당신이 아직 당신의 순전함을 붙잡고 있는 동안/있을 때 하나님을 축복/찬양하고 죽으십시오.” 27:3-6, 특히 “나는 죽기까지(=죽더라도)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5b절은 아내의 말을 기억나게 한다. 욥과 아내의 관계에서 일반적인 이해와 달리 아내의 욥의 전조이며, 이때 욥은 친구들의 역할을 아내에게 수행한다는 점에서 친구들의 전조이다.

부터 단절되고 홀로 되었다. 바로 이 상태에서 그가 이유/보상 없이 야훼를 경외 하겠는가 문제가 된다.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 ‘보상 없이 야훼를 경외하겠는가?’라는 문제의 조건이 마련된다.

욥의 4절 질문이 하나님의 변화를 초래한다. 욥의 변화에 앞선 변화다(비교: 홍수 이후 야훼의 변화). 그는 폭풍의 외투를 벗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사건 가운데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준다(5절). 티끌과 재가 현재 고난의 상징이라면 그 위에서 야훼를 이렇게 다시 만남이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수용하고 거기서 오히려 위로를 발견하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되지만, 그렇게 형성된 관계는 욥과 같은 상황에서 보상 없는 야훼 경외를 가능하게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상이 없다고 야훼 경외가 해체되지 않는다. 탄원처럼 야훼를 향한 욥의 항의와 질문은 그가 그의 이유 없는 고난 배후에 있는 야훼에게 절망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폭풍 속에 현현한 야훼가 그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며 추궁했을 때에도 그렇다. 만남이 치료에, 만남이 보상에 우선한다.

<주요어>(Keywords)

욥, 보상, 고난, 야훼 경외, 교차법, 폭풍 속 야훼, 티끌과 재, 소위소치관계.

Job, Retribution, Suffering, Fear of Jahweh, Chiasm, Jahweh in storm, dust and ashes, Tun-Ergehen-Zusammenhang.

(투고 일자: 2010년 1월 7일, 심사 일자: 2010년 3월 31일, 게재 확정 일자: 2010년 4월 1일)

아내와 욥, 욥과 친구들의 관계는 탄식과 책망/심문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아내의 말은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자의 탄식이 친구들과 같은 정죄가 아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저주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한 탄식을 어리석음이라고 한다. 친구들이 그의 탄식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참고문헌>(References)

-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욥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이환진, “욥이 옳은가? 친구들이 옳은가? - 마소라 본문 욥 32:1의 ‘그는 그의 눈에 옳다’(hw’ šdyq b’ynyw)란 표현을 중심으로”, 『신학과 세계』 64 (2009), 5-33.
- 하경택, “욥 탄식과 하나님 발언의 관계성 연구”, 『구약논단』 22 (2006), 98-114.
- Dailey, Th. F., “‘Wonderously Far from Me’ The Wisdom of Job 42:2-3”, *BZ* 36 (1992), 261-264.
- Dailey, Th. F., “And Yet He Repents - on Job 42:6”, *ZAW* 105 (1993), 205-209.
- Ebach, J., *Streiten mit Gott Hiob*, Bd. 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5.
- Eisemann, M., *Job. A New Translation with Commentary Anthologized from Talmudic, Midrashic, and Rabbinic Sources*, ATS, New York: Mesorah Publications Ltd., 1994.
- Hurvitz, A., “The Date of Prose-Tale of Job Linguistically Reconsidered”, *HTR* 67 (1974), 17-34.
- Iwanski, D., *The Dynamics of Job's Intercession*, Roma: Editrice Pontificio Instituto Biblico, 2006.
- Krüger, Th., “Did Job Repent?”, Th. Krüger u.a., eds.,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Beiträge zum Hiob-Symposium auf dem Monte Verita vom 14.-19.*, ATANT 88,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7, 217-229.
- Mathis, C., “‘Sieh doch den Behemot!’ Die zweite Gottes Rede Ijob 40:6-41:26”, *BN* 112 (2002), 74-85.
- Morrow, W., “Consolation, Rejection, and Repentance in Job 42:6”, *JBL* 105 (1986), 211-225.
- Newell, B. L., “Job: Repentant or Rebellious?”, *WTJ* 46 (1984), 298-316.
- Oeming, M., “‘Ihr habt nicht recht von mir geredet wie mein Knecht Hiob’ Gottes Schlusswort als Schlüssel zur Interpretation des Hiobbuchs und als kritische Anfrage an die moderne Theologie”, *EvTh* 60 (2000), 103-116.
- Olson, A. M., “The Silence of Job as the Key to the Text”, *Semeia* 19 (1981), 113-119.
- Oorshot, J. V., “Die Entstehung des Hiobbuches”, Th. Krüger u.a., eds., *Das*

Buch Hiob und seine Interpretationen. Beiträge zum Hiob-Symposium auf dem Monte Verita vom 14.-19., ATANT 88,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05, 165-184.

Pellauer, D., "Reading Ricoeur Reading Job", *Semeia* 19 (1981), 73-83.

Perdue, L. G., *Wisdom in Revolt. Metaphorical Theology in the Book of Job*, JSOT 112, Sheffield: Almond Press, 1991.

Shepherd, D., *Targum and Translation: A Reconsideration of the Qumran Aramaic version of Job*, SSN, Assen: Van Gorcum, 2004.

Van Wolde, E. J., "Job 42:1-6: The Reversal of Job", W. A. M. Beuken, ed., *The Book of Job*, BETL 114, Louvain; Belgium: Uitgeverij Peeters, 1994, 223-250.

Tilley, T. W., "God and the Silencing of Job", *Modern Theology* 5 (1989), 257-270.

Wolters, A., "A Child of Dust and Ashes", *ZAW* 102 (1992), 116-119.

Zuckerman, B., *Job the Silent. A Study in Historical Counterpoin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Abstract>

Job 42:1-7: Is There a Groundless Suffering?

Dr. Sang-Kee Kim
(Jeonju University)

This essay studies Job 42:1-7 as an open unit, though 42:1-6 is stylistically differentiated from V.7 and each of them is historically ascribed to other origin. Such an attempt can be justified by its chiasmic structure: V.2 and V.7 are placed on the semantic Axis of Recognition, that of God's power by Job and that of Job's relative righteousness by God. The former is not all that different from his previous response in 40:4-5, which would necessitate God's another speaking. V.3 and V.6 deal with Job's attitude toward God, which changes from his reluctant admission of his own speech act through ignorance to the willing resolution, not to do as before. V.4 and V.5 give a possible information about the immediate cause of the change. In V.4 Job presents himself as an inquirer to God, which speaks for his consistent, but not yet satisfied concern about his own fortune (cf. 13:22; 14:15a; 31:35). Job's rather unexpected response in V.5 cannot presuppose God's answer to his request, though our Text is silent upon that. Then we may well think about a gap between those two verses. This is well comparable to the change of mood in lament Psalms. When this is considered as reasonable, the event represented by the gap is distinguished from God's appearance in tempest in cap. 38-41*, for God there behaved just like an adversary, who would force Job to admit his mortal ignorance and incapability before Him the Creator. In this regard God appears to keep up with the work of Job's friends including Elihu, who introduces and prepares God's intervention, that is, in 36:22ff.; Elihu's rhetorical questions in 37:15-19 anticipate God's in form and content.

Job story is written around the question: Can man really fear God for nothing? But it is treated in the modified form of groundless suffering. Job's friends judge his suffering as a logical consequence by the traditional theological conception "Tun - Ergehen - Zusammenhang", where they falsely deduce from his present that his past was under sin and wickedness, and to convince him of that.

The above structure makes clear that it is not the experience(=Erfahrung) of

God in storm, but that of the unmentioned in a unsayable event in gap, which makes Job accept and stand his reality symbolized by “dust and ashes”. In it man may not see any answer to the modified question. In fact, V.7 alludes to the existence of a groundless suffering, which in Job’s opinion must have come from God Himself; God shows himself to be on Job’s side. What matters is nevertheless that this suggests the change of the high-handed God in storm to God, who stands for having opposed Job. Both changes, Job’s and God’s, are textually conditioned by Job’s asking questions in V.4 - the importance of that point is not enough to emphasize.

God acts as intermediary agent to reconcile Job and his friends, while Job is still in pain. Job is therefore to become a friend of those friends, who should have befriended him. Before a groundless, so incomprehensible suffering of a person one should be on his side, though he seems to go so far as to blame and complain, that is what the Book Job says.